

미-베트남 섬유류 협정 체결

미국, 베트남간의 섬유·의류 무역협정체결을 통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가 적용되게 되는데 대해 미국의 수입자나 베트남의 금석장하는 섬유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됨

□ 협정체결에 양국 관련자들 모두 불만

- 장시간의 협상을 통해 25일 서명된 동 협정은 38개 섬유류에 대해 최초로 쿼터가 적용되며, 이로서 미국측은 금년중 16억 달러규모의 대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고, 그 이후에는 매년 면직류는 7%씩, 양모류는 2%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.
-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동 협정은 2004년 이후에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 매년 쿼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.
- 이 협정에 대해 양국 관련인사들은 향후 영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음. 과거 1년간 대미 섬유류 수출이 14억 달러에 달했던 점에 비해 수출확대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 대해 반대론자는 동 협정이 없던 경우 금년중 대미 섬유류 수출은 24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
- 한국측의 관계자도 이 협정으로 쿼터량이 생산능력에 못미쳐 외국인 투자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

□ 외국인투자기업들 대책 마련에 부심

- 일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생산업자들은 생산라인 다양화와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신 쿼터에 적응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, 이번 쿼터로

신규투자와 기존 생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베트남의 160만 명에 달하는 섬유업 근로자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

- 그리고 쿼터가 과거실적기준임을 감안하면 건설중인 외국인공장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베트남무역장관은 쿼터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나 신규쿼터는 생산량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고 언급
- 한편 저임과 탄력적인 오더 등에 매력을 느껴오던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국가에서 탈피 베트남시장진출을 노려왔으나 이번 쿼터로 사실상 피해자가 된 것으로 토로

□ 미 생산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의 결과

- 미 섬유류 생산업자들은 경제침체로 국내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엄격한 쿼터를 주장
- 양국측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후에도 미 생산업자와 의회지지자들은 상무성에 로비를 통해 1주일간 협정을 지연시켰음. 남부 수 개주에 근거를 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생산업자들은, 멕시코, 카리브해, 중미등에서 미 섬유류를 수입하며 특혜를 받고 있는 의류제조업자들은 보호하기 위해 행동함.
- 그러나 결국 이번 조치로 덕을 보는 것은 2005년에 쿼터적용에서 해제되는 중국으로 향후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

선임연구원 김종호(3779-6674)
E-mail: jhokim@koreaexim.go.kr